

기상천외한 학교인영

신이 다스리는 학교

유상덕 <前 성동고교 교사>

II

서울 D고교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설립된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S대 최고 합격자를 낸 학교의 하나로서 당시 사외인 통기사를 차지했다. 불과 얼마되지 않아 이 학교는 또 한번 사외인 통기사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그 학교의 '민병찬'과 '김흥식' 두 명이었다. 민교장은 민중사학인 K대를 졸업하고 자사고 없이 특선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교육하나에 평생의 뜻을 바치고 경기도산골 마을에서 20여년간 고산 생활을 하다가 마침 이 학교의 설립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생숙원이던 학교 하나 내 손으로 설립한다는 보람으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 학교부지를 만드느라 산골짜기에 널려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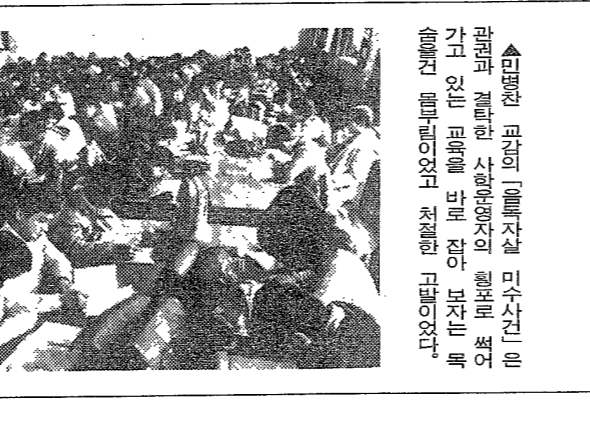
한국私學을 해부한다

시위주의 교육이었던) 불과 몇년 사이에 소위 신중명분사학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학교 설립자인 재단이사장과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 및 교직원 사이에 무슨관계가 가로놓여 있었다. 이사장은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거론하기 힘든 기묘한 일들을 차츰 차츰 노출시키기 시작하였다. 유명영화배우나 가수들이 과거 이사장이 술집 경영을 할 때부터 밀린 임금 상환을 받으려 빈번히 학교를 출입하여 학생들을 동요시키거나 하면, 사기사건으로 피소되기도하고, 교직원 인사 문제를 위시한 학교제반운영을 전횡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호불호는 유능한 교사들을 내쫓고 사사건건 비교육적인 처사로 학교는 점점 안으로 속속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호봉높은교사 내쫓기는 현실 상식초월한 비교육적 작태도

목욕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후의 학교사정은 어떤가? 목욕을 건 문제제기에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를 위시한 관공은 매스컴까지 동원하여 사건은폐와 왜곡이란 골목하였고 진실은 외면한채 2년여의 관선이사 파견기간을 거친 후 이사장은 버섯이 원상복귀되어 학교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부패한 특수는 부리뽑히지 않은채 다시 머리를 들고 있었다. 이러한 풍토속에서 민족정신을 일깨운다는 사회이념이 차지할수 있는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으며 지금은 그러한 사실조차 차츰차츰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수출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에 도달한 사회의 위

상헌의한 학교운영으로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학교가 되고있다. 그 학교에 근무하다 파견당한 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신이 다스리는 학교」라고 표현한다. 어떻게 해서 학교가 정규시간외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야 무슨 수업시간인지 아는 학교운영이 있을 수 있는가? 교사정원이 40여명인 학교가 일년에 4-50명의 교사교체가 되고도 어떻게 교육이 될수 있을까? 그런 학



간 YMCA교사의 회원들까지 '불온' 운운하는 도무지 상식을 벗어난 자세를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연출하는사학집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의심스럽다.

사학의 운을 승부리째 빼 버리고 모리배들이 판치는 오늘의 현실을 만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나 『수습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태』란 바로 이런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를 두가지만 들었지만 열거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가? 사립대학에서 부수히 발생한 문제는 차지하고 중 고의 사학들을 보자, 중 고 때 퇴직자만 중점적으로 설립자가 특권적인 학교운영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건 S학원사건, <계속>

目次

1. 私學의 成立과 精神과 設立精神
2. 國家와 私學의 關係
3. 私學의 現 在적 위치
4. 私學의 부흥 방안

교장이 거액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대구 J여사건, 부당해임에 항의한 교사전원을 징계파면조지한 서울 J고교 사건등... 급변에 발생한 사건만 하더라도 서울 Y고교의 교장이 공금횡령 및 외화유출사건으로 구속되는가 하면, 서울 S고교장은 자기학교 교사를 시켜 자녀를 비밀과외 시켰다가 파면된 웃지못할 사건들이 사외인 통기사를 차지하고 있다. 커다란 사건들만 들어도 끝이 없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학의 비리와 교권침해사태는 이제 침투하여 기초차 부끄러움 정도이다. 마치 목욕집같이 교육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태들이 걸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뚜렷한 증거가 아닌가? 사립학교법이 관련의 개입을 강제시켜 관련담당과 부패의 특수를 주입하고, 관련과 결탁되어 있는 사학 설립자들이 특권왕국을 건설하여 갖은 비교육적 처사들됨 함으로써 학교의 교직원들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어떻게 손을 써볼 여유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의외의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 의외의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계속>

가장 빛나는 시절

음원가 시작— 자그마한 채주에 서울운동장 스탠드를 누비며 한바탕도 통치된 힘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처음은 여자라는 점에 당황하고 동성거리며 한편으론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나—둘—셋— ...남산코끼리...아! 감동 그 자체였다. 통치된 힘은 대단했다. 나도 그들도 모두 신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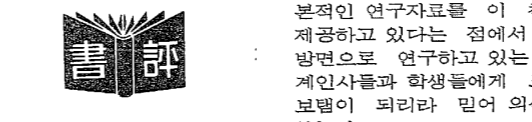
東岳路

울런— 벌써 1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목욕의 아카시아 나무도 더 고목으로 변하고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총칼이아스팔트길로 변하고 돌들은 철수, 영화, 진철, 명환, 성희, 영의... 누가앞에 나서서것이 좋아 소중한 시간 열심히산 긍지느겨 고래심줄같은 끈기와 용기 필요 아빠들이여 열심 살아가는 지금 나는 영화감독이었다. 학창시절— 학교방송국, 연극연습, 단편영화제작, 선두부, 응원부... 그야말로 동에 뉘쳐 서에 뉘쳐서였다. 가장 빛나는 시절 시간이 아까워 열심히 생활했다. 내가 감독하기까지 거름이 된 소중한시간들이었다. 영화감독이 된 지금 남자를 탐바주니에 끼여 행여 여자의 약점을 잡힐까봐

民族統一論

閱 丙 天 교수 著

未來의 統一國家像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總8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질적 구체적방향 제시 아쉬워

누구나 할 것 없이 限界를 갖고 있다. 그것은 이 연구에 있어 하나의 주요대상인 北韓에 대한 자료와 의지를 진실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필자 자신도 이 점을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또 이책의 내용중 필자가 이미 발표한 論文을 수정하여 하나의 체계로 손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도 다소 한계성을 느낄 수 있

다. 따라서 필자도 만족스럽 게 느끼 못하는 내용부분 에 대해서 후후에 보완하 여 완성된 통일논리를 전개 해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끝으로 필자의 성의있는통 일논의에 대한 體察性있는善 書發刊에 찬사를 보내고 관 심있는 많은 분이 필독하여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 는데 밑거름이되기를 바란다.

東國漫評



▲바나위다: 반지럼고 도 아주 인쇄하다. ▲가 기: 몹시 알뜰게 보이는 顯氣 ▲어기차다: 성질이 매우 골세하다. ▲어 리뚝하다: 특박한 정도 가 보름에 미치지 못하다. ▲캠패름다: 성질이 딱딱하고 과산하다. ▲푸점 없다: 남에게 대하여 포용성, 불입성, 또는 인내라 가 없고 알뜰하거만 하다. ▲성마르다: 도량이 좋고 성질이 급하다. ▲숫 지다: 후하고 순박하다. ▲술명하다: 수수하고 질맛다. ▲순되다: 순직하고 진실하다. ▲물수 하다: 성질이 넓고 깊다. ▲잔질다: 마음이 골세 지 못하고 약하다. ▲잔 작하다: 나이보다 늦되고 용렬하다. ▲잔밑다: 몹 시 알뜰다. ▲잔부끄럼: 작은 일에도 부끄러워 하 는 마음 ▲발실: 남의 비밀을 알아다가 다른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발 달강아지: ①일없이 짝 짝 거리고 쓰다듬. ②결을 을 걷기 시작한 강아지. ▲감치다: 어쩔지 잊혀 지고 마음에 감춘다. ▲시배하다: 마음에 차 : 때죽고 시끄러워서 정신 이 어지럽다. ▲휘휘하 다: 무서운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너무 쓸쓸하다. ▲운김: 울렁으로 우러나 는 힘. ▲겉물다: 남이 무슨 일을 하는 운김에 따 르다. ▲업투러부리다 : 어린아이처럼 심술을 부 리다. ▲뒤보다: 좌각으 로 잘못 보다. ▲흥감 부리다 흥감스러운 것을 하다. ▲넙늘다: 집안을 지키면서도 제멋대로 흥취있 게 말이나 행동을 하다. ▲꼭뒤누르다: 위의 세 력이 아래를 누르다. ▲곱죄이다: 儼然한 일이 있어서마음이 어연못 작지 못하다. ▲뒹되다: 압박이아주 심하다. ▲덜러 방망이: 때리려고 어르 는 것. ▲되말이다: ①엷것 손이나 힘주는 맛이 매우 세다. ②두손이 힘에 벅 차다. <문화부>

세계대학순례 ③

폴·뉴만도 거쳐간 “예일大學의 기숙사생활”

예일대학이 있는 항구도시 뉴-해븐은 “뉴-하버드”로 불리운다. 예일은 University 이지만 학생은 전체가 “예일칼리지”에 소속되어 있다. 스쿨칼리지 예일 불투와 백색 미국대학중 최초의 마스코트가 된 불독은 “해설 번”으로 불리고 예일대학생들이 사부상을 갖고 즐겨부르는 예일송 “블루”는 이대학을인 불독이 작곡했다.

신고식에서 가래덩어리(?)를 삼켜야 하는 고역과 함께 시작되는 예일대학의 기숙사생활. 하지만 일단 입실하면 앞으로 A 학점은 보장받은거나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며 미국의 지성, 세계학문의 요람으로 대표되는 명문 예일대학 예일대학의 기숙사생활은 비로 대학원만이 가진 수 있는 낭만적 자유의 세계와 학문의 자세를 배우는 하나의 원천이다. 그곳의 기숙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고 지루하고 공부하는 주거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지성생활”의 축소판으로 예일대학이 살아있는 대학의 생생한 환경인 것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까다롭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입실신고를 거쳐야 한다.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기숙사 선배는 가래질 뱀의 소리를 내며 대신 생활을 넘는다. 입안에 들어있는 가래덩어리(?)를 골뎀 삼켜야 하는 고역— 또한 높은 것대에 기쁨을 잔뜩 발라 놓고 맨발로 그곳을 올라가야 하는 기숙사입실생. 우리에게 친숙한 지성배우 폴·뉴만도 이기숙사에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받았을은 물론이다. 수재중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까다로운 면집을 거쳐야 하는 이 기숙사는 첫날부터 이러한 많은 고역을 이겨 내야만 비로소 한 시구가 된다. 아마 나약한 수재 보다는 강인한 전례를 필요로 하는 이 대학의 전통성에 기인한 것이라.

남자 기숙사는 프라테르니티(Fraternity), 여자 기숙사는 소로리티(Sorority)라 불리는데 이들 기숙사는 각 학과별로 운영되며 들어

가기가 힘든만큼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예일 기숙사생이면 미국 어느 대학이라도 해당과 기숙사에 두루로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학업도 A 를 보장받은 거나 다름없다. 배우려는 모든 교수들의 잘 정리된 강의노트와 명실전전의 시험지까지 선배들의 배려로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영도 학생들 스스로 지치도록 하여 이곳 기숙사는 요리사 조수부터 청소부까지 전부 파트 타임제로 일하는 예일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캠퍼스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기숙사에는 각각 200~300명 규모의 학생들이 가득 찬 분위기에 낭만을 구가하며 자유스럽게, 그러나 규정에 따라 조율한 공부환경을 만들어 가기에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주말은 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Mixer Party라 불리우는 젊음의 만년이 불을 당긴다.

예일대학생은 무료, 탁하고 학생들 이라도 18 정도만 내면 마음껏 맥주를 마시고 마음껏 노래부르며 몸뚱이를 뽐낼 수 있다. 자유를 만끽하며 보이지 않는 질서를 지켜가는 기숙사생활— 파리가 끝나가 무성해 기숙사에서 책을 펴는 그들의 모습은 왜 예일이 오늘날 예일이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빛나는 전통인 것이다.

젊음이 넘치는 신선한 맛

크라운맥주

